(738)

조

주체 107
(2018)

1

차 례

륜전기계공업발전을 위하여 ······ 1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좌우명으로 ······ 4
청춘대지로 전변된 세포지구 축산기지 ······ 8
인기있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 14
다양한 운동신발들을 생산 ······ 16
양어에 힘을 넣어 ······ 18
석탄증산으로 들끓는다 ······ 20
만복동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 22
청춘의 지혜와 열정으로 ······ 24
행복속에 자라는 원아들 ······ 26
애국은 대를 이어 ······ 28
미술신동이 공훈예술가로 ······ 30
노래와 함께 흥하는 공장 ······ 32
깨끗한 바다환경을 위하여 ······ 34
탁구선수후비들이 자란다 ······ 36
인간생명의 기사들 ······ 38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발굴 ······ 38
미국은 50년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0

표지: 새형의 뜨락또르들이 생산된다.　　사진 리명국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륜전기계공업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43(1954)년 9월의 창립당시 호미와 낫이나 벼리던 자그마한 소농기구제작소였던 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굴지의 뜨락또르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80hp뜨락또르 《천리마-804》호들을 보시였다.

주체105(2016)년 공장에서 개발창조형으로 생산한 새형의 뜨락또르견본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주체106(2017)년에 수행해야 할 생산목표도 정해주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줄기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해 9월말까지 총조립을 전부 끝낸데 이어 부하시운전과 주행시험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수백대의 새형의 뜨락또르들이 즐비하게 서있는것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볼만하다고, 대단한 성과이라고, 수고들이 많았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뜨락또르에 올라 운전도 하시며 《천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였다고 하는 뜨락또르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뜨락또르는 단순한 륜전기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라고, 공장로동계급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겼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공조립직장, 제관직장, 주물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다음해 수행해야 할 뜨락또르생산과제와 공장개건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새로 생산된 뜨락또르와 자동차에 오르시여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이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39(1950)년 10월 20일에 창립된 련합기업소에는 승리산기슭에 위력한 자동차생산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산혁명사적관과 연혁소개실,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신 다음 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보시였다.

몸소 자동차에 올라 운전도 하시면서 5t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그처럼 어려웠던 전후시기 중중첩첩한 시련을 뚫고 맨주먹으로 40일만에 《승리-58》형자동차를 만들어낸 전세대 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을 훌륭히 생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볼수록 멋있고 정이 드는 우리 식의 5t급화물자동차들은 만리마시대에 탄생한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할수록 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 더 강해지고있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기적을 낳고있다는것을 새로 만든 5t급화물자동차들이 실증해주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립직장, 정밀가공직장, 기관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다음해 수행해야 할 화물자동차생산과제와 련합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칠수 있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안고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글 최광호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9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좌우명으로

조선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가 계속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장구한 인류사에 처음으로 인덕정치의 새 경륜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고귀한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나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나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주체104(2015)년 가을 대동강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행복의 배인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띄워주실 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무지개》호는 인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모래알이나 같다, 우리는 이런 모래알들을 모아 큰 산을 쌓아야 한다.

이렇듯 자신의 모든 사색과 실천을 언제나 인민의 편의, 인민의 행복과 결부시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기에 주체101(2012)년 5월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의 한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로인들, 영예군인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한 흔히 스쳐지날수 있는 평범한 사실에서 인민을 위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고 다른 식당의 의자들을 보시고서는 식당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일깨워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현지지도의 길에서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의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며 그를 위한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즉시 하달하시였다.

행복의 웃음넘치는 전국의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들과 소년단야영소들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5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는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하시며 아이들을 기다려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창전거리에 새로 입사한 로동자가정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1(2012)년 9월

옥류아동병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3(2014)년 3월

주체101(2012)년 10월 **김일성**경기장에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제12차 인민체육대회 남자축구결승경기를 보아주시고 경기에서 이긴 4. 25팀의 선수들과 감독들을 불러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장바닥에 있는 다른 팀선수들을 보시고서는 선봉팀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패한것만도 섭섭하겠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면 밤잠을 자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몸가까이 부르시여 한사람한사람 손을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생활필수품품평회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9월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6월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2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7월

잡아주시고 다음번에는 꼭 1등을 하라고 뜨겁게 고무도 해주시였다.

평범한 교육자, 로동자가정들을 찾으시여 새집들이도 축하해주시고 최전방 섬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 알게 되신 어린이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으시였을 때 돌생일선물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이시기에 인민이 당하는 아픔은 그대로 그이의 아픔이다.

하기에 3년전 조선의 최북단 라선시에 큰물로 인한 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피해복구를 맡아 단기간에 끝낼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령길, 배길로 2 000여리의 멀고 험한 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시였으며 불과 한달남짓한 기간에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되게 하여주시였다.

2년전 함경북도의 북부지역이 기상관측이래 처음인 돌풍과 무더기비로 전대미문의 대재앙을 겪었을 때도 재난을 당한 인민들생각으로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잠을 못이루신 그이이시였다.

몇달 지나지 않아 겨울이 닥쳐오겠는데 폭우로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을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전하며 그후 불과 두달남짓한 기간에 1만 1 900여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서는 기적과 함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소리높이 울려퍼졌다.

릉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옥류아동병원,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려명거리 등 이 땅우에 솟아난 수많은 창조물들은 그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를 전하는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이다.

참으로 이민위천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보살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조선에서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글 정기상

멀고 험한 조국의 북변 라선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청춘대지로 전변된 세포지구 축산기지

세포등판이라면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조선에서 눈포, 비포, 바람포로 유명하고 척박하기 이를데 없는 땅으로 되여있었다.

황량하던 이 등판에 오늘은 5만여정보의 대초원이 눈뿌리 아득히 펼쳐지고 수백정보의 바람막이숲과 1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 2 000여km의 방목도로와 360여km의 배수로, 저류지들이 형성되였다.

그리고 수천동의 살림집과 집짐승우리, 공공건물들, 수의방역시설들, 축산물가공기지 등의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통합생산체계와 수의방역체계를 갖춘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대규모축산기지가 솟아났다.

수수천년 버림받아온 황무지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사회주의 청춘대지로 전변된 이 천지개벽은 나라의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위력이 안아온 기적적인 승리이다.

주체101(2012)년 12월에 착공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수만정보의 황량한 땅을 갈아엎고 풀판을 조성해야 하는 엄혹한 자연과의 전쟁이였으며 조선인민이 잘 사는것을 가로막아보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간직한 인민군군인들과 922건설돌격대원들은 개간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엄혹한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발휘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창안도입하여 언땅을 까내고 풀뿌리들을 들춰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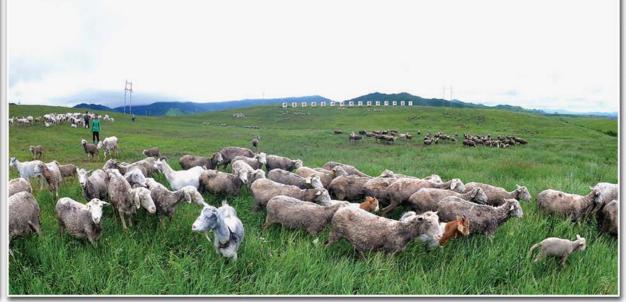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 분과 초를 비약과 혁신으로 이어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5만여정보에 달하는 등판이 개간된데 이어 토지가 개량되고 바람막이숲과 풀판보호림, 배수로들이 형성되였다.

그리고 집짐승먹이풀씨를 뿌리고 과학적인 재배방법들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천리풀판이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집짐승우리들과 가공시설, 수의방역시설 그리고 살림집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문화회관 등 수백동의 건물들을 일떠세웠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축산정책관철의 길에서 솟아난 세포지구축산기지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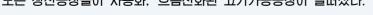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태현

눈포, 비포, 바람포로 유명하고 척박하던 세포등판에 5만여정보의 대초원이 펼쳐졌다.

축산학연구소와 수의방역소들도 꾸려져있다.

소와 양, 염소 등을 기를수 있는 집짐승우리들과 종축기지들도 건설되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고기가공공장이 일떠섰다.

세포려관

은덕원

성산원

살림집들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진료소, 문화후생시설들도 건설되였다.

인기있는 화장품들을 더 많이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은하수》화장품과 더불어 전국에 널리 알려진 평양화장품공장이 지난해 10월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였다.

모든 건축물들이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려졌을뿐아니라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여 공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화장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활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공장의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구축된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로동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리용하여 자기 부문에 해당한 선진과학기술을 깊이있게 체득하면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의 특성도 파악하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도 철저히 지키면서 기대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공장의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의 연구사들은 조선사람의 기호와 특성, 취미에 맞는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들을 개발하고 그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하여 공장에서는 새로운 화장품들의 개발주기가 계속 단축되는것과 함께 제품들의 생산주기도 짧아지고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첫번째로 꼽는 이 공장의 세수비누와 함께 로화방지크림과 미백살결물 등 기능성화장품들, 치료용화장품인 여드름치료크림 그리고 머리칼고착제를 비롯한 분장용화장품들은 구매자들의 커다란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호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공정의 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들속에서 호평받는 질좋은 화장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다양한 운동신발들을 생산

주체77(1988)년 11월에 사출운동신발생산기지로 창립된 류원신발공장이 지난해 10월 새로 개건되였다.

질좋고 맵시있는 다양한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에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연건축면적 2만 4 700여㎡의 건축공사와 169종에 1 844대의 설비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각종 운동신발과 종목별 전문체육신발생산기지로 전변시키였다.

모든 생산 및 운영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는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되여있어 공장에서는 생산과 품질의 최량화가 실현되였다.

원료배합, 재단, 사출, 제화, 재봉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 로력을 극력 절약하고있다.

생산현장에 성능이 높은 송배풍기를 설치하여 유해가스가 완전히 없어져 로동자들은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산환경이 보장된 일터에서 문명하게 일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도입하여 가벼우면서도 질이 좋은 신발창을 생산하고있다.

그리고 9종에 130조의 운동신발창형타와 깔창형잡이형타를 제작하고 레이자재단기, 갑피재단기, 채본인쇄기 등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고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검측설비들도 제작설치하여 제품검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도안실을 새로 꾸려놓은 공장에서는 도안을 선행시키고있을뿐아니라 전문가들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속에서 도안창작현상응모도 활발히 벌리여 특색있는 신발들을 창안하고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시야를 넓혀나감으로써 신발생산에서 걸린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고있다.

지금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여러가지 운동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증산의 동음을 계속 높이 울려가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김충복

도안실

레이자재단기

재봉직장

인쇄장식작업반

양어에 힘을 넣어

-순천메기공장에서-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교외의 장성강기슭에 메기공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순천메기공장건설에 떨쳐나선 도안의 건설자들은 5만 3천여㎥에 달하는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생산건물, 보조건물공사와 메기기르기를 다같이 내밀어 공장의 완공과 함께 메기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순천탄광기계공장과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메기공장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물가열기, 사료가공과 단백먹이가공설비, 알깨우기설비 등 백수십가지의 양어설비들을 제작완성하여 보장하였다.

연건축면적이 2만 4 120여㎡인 공장에는 알깨우기호동, 실내비육호동, 야외박막못을 비롯한 생산공정들과 메기가공장, 랭동고, 사료가공장 그리고 문화후생시설들이 경영활동에 편리하게 들어앉아있다.

공장에서는 양어에서 기본3대요소인 종자와 먹이, 물관리에 힘을 넣어 메기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연구하여 국가발명권을 받은 진공법에 의한 메기새끼생산을 현실에 받아들여 알의 무균상태를 보장하면서도 일반크기보다 1. 5배나 크게 하여 커다란 실리를 얻고있다.

또한 메기의 성장에 따르는 생리적특성에 맞게 단계별 팽화먹이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증체률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물재순환체계도 확립되여있어 양어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깨끗히 려과하여 다시 리용하고있다.

순천메기공장에서는 철갑상어와 열대붕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도 기르고있다.

사진 리명일 글 박병훈

야외박막못

사료가공장

알깨우기호동

석탄증산으로 들끓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인포청년탄광에서 석탄증산으로 들끓고있다.

갱들마다에서는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채탄장들에서는 채탄기들의 동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탄전이다.

탄광에서는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하여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대중의 높은 정신력을 증산의 열쇠로 틀어쥐고 탄부들의 애국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킴으로써 탄광에서는 날마다 혁신적인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청년갱의 굴진공들은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을 선행하여 유망한 예비탄밭들을 넉넉히 마련하였다.

탄상조건에 따르는 여러가지 채탄방법들이 적극 도입되여 석탄채취률이 1.5배로 높아졌다.

갱들마다에 관성식적재운반기와 연충탄상차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새로운 설비들을 창안도입하였으며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실현에서도 많은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탄부들속에서 먼저 교대가 다음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 설비들마다 만가동, 만부하가 보장되고있다.

석탄증산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탄부들의 드높은 생산열의로 하여 인포청년탄광에서는 날마다 석탄산이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사진 리일명 글 박영조

인포청년탄광에서는 굴진을 앞세워 유망한 예비탄밭들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여러가지 채탄방법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만복동에 넘치는 인민의 기쁨

수십만㎡의 넓은 부지에 줄비하게 늘어선 1 500여세대의 문화주택들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고 솟아있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 종합진료소 등과 상점을 비롯한 상업편의봉사시설들…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이 마을은 조선의 북변 라선시에 자리잡고있는 선봉지구 만복동이다.

여기서 주체104(2015)년 8월 례년에 없는 무더기비로 혹심한 재난을 겪었던 흔적은 도저히 찾을수 없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파괴되고 10여개의 크고작은 다리들이 끊어졌으며 철도운행과 통신,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많은 면적의 농경지들이 침수, 류실되였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방사업과 관련한 전략적인 문제들이 토의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중요의제로 제일먼저 토의하도록 하시고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조선로동당창건 기념일(10월 10일)전으로 끝낼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하여 당시 백학동이라 불리우던 이곳에서는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벌리는 사랑의 《전쟁》-피해복구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벌어졌다.

그리고 불과 30여일후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텔레비존과 솜옷, 각종 내의류, 모포를 비롯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받아안은 선봉지구의 수재민들 남녀로소 모두가 춤을 추고 울고웃으며 새집들이를 하였다.

격정과 환희로 들끓던 이 땅에 오늘은 행복과 즐거움, 랑만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사진 김윤혁 글 김선경

청춘의 지혜와 열정으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열렬한 조국애가 뜨겁게 맥박치는 이 구호를 탐구의 좌표로 내세운 평양건재공장 공업시험소 청년기술자들은 청춘의 지혜와 열정으로 첨단을 돌파하며 생산활성화의 진로를 열어나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기계종합대학,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등 나라의 대학들에서 교육을 받은 그들은 20대, 30대의 청년들이다.

대학을 졸업한지 몇년밖에 되지 않으며 현장경험도 부족하지만 생산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앞에서 주저를 모르는 그들이다.

타일생산에서 제기되는 설비의 조종장치를 새롭게 개조하는 과학기술적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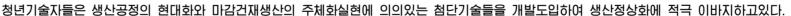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조종장치를 놓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가 아니면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김국철, 정평웅기술자들은 스스로 이 과제를 맡아나섰으며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끝끝내 조종장치를 새롭게 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청년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CNC모형가공반프로그람이 개발되고 새로운 위생자기모형들이 설계제작되였으며 온도조종장치개발 등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마감건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 의의있는 첨단기술들이 련이어 개발도입됨으로써 평양건재공장에서는 언제나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탐구의 나날에 청년기술자들속에서는 여러명의 2.16과학기술상수상자들이 배출되였으며 여러건의 과학기술성과들이 지난해 진행된 제15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와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첨단돌파전의 1번수가 되여 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있는 청년기술자들은 평양건재공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현

청년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마감건재생산의 주체화실현에 의의있는 첨단기술들을 개발도입하여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예술적재능도 마음껏 펼쳐가고있다.

행복속에 자라는 원아들

강성조선의 역군이 될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있는 원아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가고있는 속에 지난해 9월 평안남도 안주시에 서해학원이 새로 일떠섰다.

4만㎡의 드넓은 부지를 가진 학원에는 한평생 온 나라 학생소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교사를 중심으로 체육관과 기숙사들, 식당과 편의시설 그리고 야외체육장과 수영장들이 현대적이면서도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있다.

학원의 해빛밝은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에서는 원아들이 강성조선의 역군이 될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고있다.

학원에는 미술실과 음악무용실 등 여러 소조실들이 있을뿐아니라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있어 원아들은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능을 마음껏 꽃펴가고있다.

예술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문화활동을 할수 있게 꾸려진 학원의 체육관은 기쁨과 행복에 겨워 마음껏 노래를 부르고 뛰노는 원아들로 흥성이고있다.

아담하고 산뜻한 기숙사의 침실마다에는 폭신한 침대며 색갈곱고 포근한 이불과 담요, 책장, 세면장 등이 원아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갖추어져있다.

넓고 시원하면서도 우아한 학원의 식당에서 끼마다 차려주는 구미에 맞는 음식들로 하여 원아들은 더없이 좋아하고있다.

명절날, 생일날에는 별식도 해주고있다.

행복속에 사는 서해학원의 원아들은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조국을 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자라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정

애국은 대를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강좌장 교수 박사 엄기수의 가정은 3대를 이어가며 과학연구의 길을 걷고있다.

보기에는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지만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수십년세월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때부터 시작된다.

엄기수의 아버지 엄녕섭은 해방(1945. 8. 15.)전 강원도 녕월군 녕월면 영흥리(당시)에서 태여나 어릴 때부터 남달리 비상한 머리로 하여 온 마을이 학비를 모아 공부시켰다.

일본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엄녕섭이였지만 그를 맞이한것은 식민지청년의 설음뿐이였다. 그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된것은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 의용군으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때부터였다.

일점혈육도 없는 그였지만 나라에서는 그를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교원으로, 강좌장, 교수로 내세워주고 과학탐구의 나래를 한껏 펼쳐가도록 보살펴주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도록 하여 과학연구사업의 중진들로 키워주었다.

엄녕섭은 공업폐설물로 만든 류산철처리에 의한 마른씨앗벼모기르기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주체98(2009)년에 2. 16과학기술상을 받았다.

맏아들인 엄기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물정화제를 만들것을 스스로 연구과제로 맡아안고 남모르는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끝내 강철연진에 의한 폴리류산철생산기술을 확립하고 현실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길에서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실장인 동생 엄기우와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인 딸 엄순영도 함께 길동무가 되고 방조자가 되였다.

현실에 도입되여 실지 은을 내는 연구성과만이 진정한 과학자의 창조물로 된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엄기수와 그의 가족은 지난 기간 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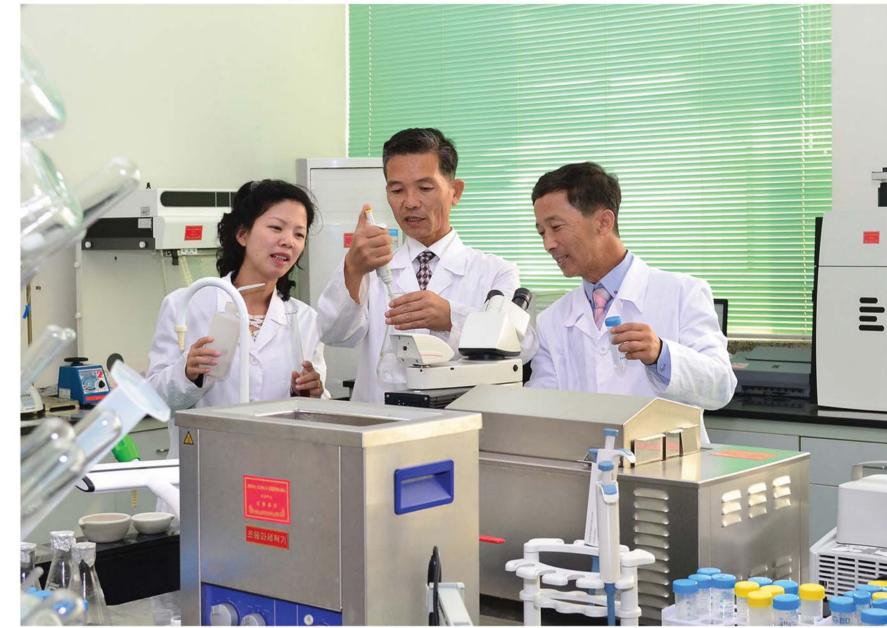
나라에서는 물정화제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깨끗한 음료수를 보장하는데 기여한 엄기수를 2016년 10대최우수과학자로 내세워주었으며 그와 동생 엄기우, 딸 엄순영에게 주체106(2017)년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하였다.

엄기수는 《과학자의 보람은 나라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가는 뿌리와 같은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룡흥네거리에 솟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자리잡고있는 엄기수의 집에는 80여개의 증서들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평범한 한 과학자가정의 자랑인 이 소중한 재부는 애국의 푸른 거목이 낳은 사랑과 보답의 열매로 과학기술강국을 떠받드는 길에 귀중한 보석으로 빛나고있다.

사진 안철원 글 강수정

국가에서는 나라의 과학연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엄녕섭과 엄기수, 엄기우, 엄순영에게 2. 16과학기술상을 수여하였다.

물정화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있는 엄기수(가운데)와 그의 동생과 딸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였던 엄기수의 아버지 엄녕섭(오른쪽)이 외국인학자와 과학토론을 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강좌장이며 교수 박사인 엄기수는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실장인 엄기수의 동생 엄기우(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인 엄기수의 딸 엄순영(왼쪽)

미술신동이 공훈예술가로

김규권의 그림솜씨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 30살인 만수대창작사 미술가 김규권은 어릴적부터 미술신동으로 널리 알려졌다.

3살때 그림공부를 시작한 김규권은 그후 소학교와 고등중학교(당시)시절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에 다니였는데 늘 소조의 자랑이였고 본보기였다.

그가 8살때에 내놓은 크레용화 《할아버지의 100돐잔치》와 색연필화《예방주사 맞는 날》은 유네스코와 유엔아동기금에서 창립 50돐을 계기로 조직한 국제아동미술전람회들에서 각각 특등과 1등을 하였다.

주체89(2000)년에 진행된 《재능있는 어린이들의 미술전람회》의 참가자들가운데서 김규권은 두번째로 나이가 어렸는데 그가 내놓은 52개의 전시품가운데는 4살때 그린 작품도 있었다.

주체91(2002)년에 진행된 전국미술축전 청소년아동부문전람회에서도 그의 작품인 조선화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1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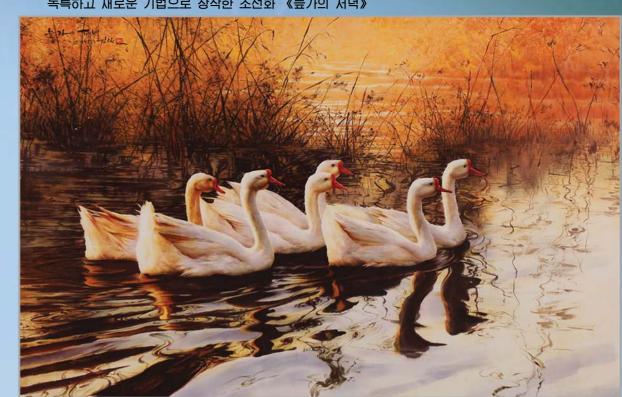
그후 평양미술대학(당시) 학생시절에 그가 창작한 작품들도 3차례의 전국소묘축전들에서 련속 입상하였다.

만수대창작사 미술가
공훈예술가 김규권

독특하고 새로운 기법으로 창작한 조선화 《늪가의 저녁》

4살때 그린 조선화 《태권도》

10살때 그린 조선화 《뭉친 힘》

주체85(1996)년 8살때 그린 크레용화 《할아버지의 100돐잔치》는
국제아동미술전람회에서 특등상을 받았다.

대학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치고 주체99(2010)년 만수대창작사 미술가가 된 그는 음악과 모래그림이라는 미술분야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다음해 2월 이 새 무대예술형식의 작품창작조에 망라된 그는 불과 두달만에 기법을 완전히 터득하고 조선의 구전문학작품의 내용을 담은 음악과 모래그림 《흥부와 놀부》를 내놓았다.

욕심쟁이 놀부의 특징을 비롯하여 그가 다양하고 재치있는 수법과 빠른 속사로 생동하게 형상한 이 작품은 흥미도 있고 인식교양적인 의미도 뚜렷하여 관중의 대절찬을 받았다.

주체101(2012)년 5월 미술의 새 분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척한 창작성원들에게 공훈예술가칭호가 수여될 때 김규권은 그들중 가장 나이가 젊은 24살이였다.

대학롱구팀의 주장이였고 현재는 창작사배구팀의 주공격수이며 성악에도 조예가 있는 그는 여가시간이면 체육을 하거나 피아노를 타면서 노래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다가 일단 작품창작에 들어가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화실을 떠날줄 모른다.

주체103(2014)년에 창작한 조선화 《늪가의 저녁》을 비롯하여 최근시기 김규권이 창작한 작품들은 구도가 새롭고 화법이 독특한것으로 하여 조선화전문가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김규권이 창작한 음악과 모래그림들의 일부

노래와 함께 흥하는 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연혁소개실에는 류다른 자랑이 새겨져있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로동자부류 2중창, 중창종목에서 5차례에 걸쳐 1등.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 특별상 쟁취.

… … …

종업원들에게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이 성과들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공장의 군중문화예술활동이 낳은것이다.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위치하고있는 공장에서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기 시작한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몇해째 계속된 엄혹한 자연재해로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주체88(1999)년부터였다.

부족한것이 많은 그때 공장에서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노래로 난관을 이겨내고 락천적인 생활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갔다.

하루일을 시작하기 전과 로동의 쉴참이면 작업반단위로 새 노래도 보급하고 저녁이면 불밝은 문화회관에서 손풍금이며 장고, 북 등 악기들에 대한 연주법도 배우면서 여러가지 예술소품종목들을 창조하였다.

그 나날에 공장의 지배인은 장고도 치고 콘드라바스도 연주할뿐아니라 노래도 곧잘 부르는 가수가 되였고 당위원장은 가야금병창과 기타병창, 어은금병창에 없어서는 안되는 반고수가 되였다.

일군들만이 아니라 성형공, 기대공 등 종업원들속에서도 연주가, 가수들이 많이 나와 공장에서는 예술소품공연무대가 자주 펼쳐졌다.

예술활동이 대중화되는 속에 공장에서는 자기들의 로동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종목들이 창조되여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참가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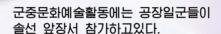
기타병창, 어은금병창, 가야금병창과 같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악기도 다루면서 노래를 부른 중창종목들은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서 언제나 1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군중문화예술활동에서의 성과들은 공장의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일터마다에 랑만이 차넘치고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새로 꾸려지게 되였으며 제품의 가지수가 늘어나 해마다 식료품생산계획은 넘쳐 수행되였다.

오늘 수성천종합식료공장은 노래와 함께 흥하는 공장으로 온 나라에 널리 자랑떨치고 있다.

사진 홍훈 글 김현

군중문화예술활동에는 공장일군들이 솔선 앞장서 참가하고있다.

흥겨운 노래속에 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 로동자부류 중창종목에서 여러차례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깨끗한 바다환경을 위하여

해양국인 조선에서는 바다환경보호사업을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진행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위한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조정할 사명을 지닌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도 조직되였다.

주체100(2011)년 9월에 창설된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는 지난 여러해동안 나라의 령해와 강하천들에서 발생하는 배에 의한 오염을 신속히 제거하고 오염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함으로써 해상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있다.

《깨끗한 환경, 즉시대응》을 자기 활동의 리념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정소에서는 국가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에 따라 기름오염대비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령해와 강하천들에서 일어나는 오염사고들을 즉시 대책하고있다.

2011년 12월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친 외국선박의 침몰에 의한 기름오염제거 및 피해복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조정소에서는 해상에서 일어난 여러차례의 기름루출사고들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대로 줄이였다.

조정소에서는 배에서 루출되는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나라의 수역과 항들에 드나들거나 항해하는 배들로부터 배출되는 물질들과 배들에서 리용되는 물질들이 기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한 분석평가를 비롯하여 배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감시측정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해상환경보호와 련관이 있는 국제기구들과 비정부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정

기름오염제거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고있는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의 일군들

강하천들에서의 수질분석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외국선박의 사고에 의한 기름오염제거 및 피해복구전투를 진행하고있다.

탁구선수후비들이 자란다

-김성주소학교에서-

제11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 체육경기대회 탁구종목 남자단체전에서 받은 금컵과 메달들

평양시에 있는 김성주소학교는 탁구를 잘하기로 전국에 소문이 자자한 학교이다.

이 학교의 나어린 탁구소조원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11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 체육경기대회 탁구종목 남자단체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개인경기와 복식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에도 학교는 제2차 전국탁구학급경기대회, 평양시 탁구학급기술혁신경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경기들의 단체 및 개인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사람들이 우승의 비결에 대하여 물을 때면 교장 리영렬은 소조활동이 천성적인 특기가 위주로 되는것이 아니라 학생들 누구나가 배우는 대중적인것으로 되고있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루공부가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탁구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꾸려진 탁구실로 모여온다.

그들은 여기서 채잡기로부터 쳐넣기자세, 치기에 따르는 공의 회전특성을 하나하나 배우고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오르면 여러가지 쳐넣기동작들과 타격기술을 공고히 숙련완성시켜나간다.

주체96(2007)년부터 학교의 체육교원으로서 전도유망한 탁구선수후비들을 수많이 키워낸 김인숙은 꾸준한 사색과 탐구로 학생들의 탁구기술련마를 보다 과학적으로 지도하고있다.

그는 기초기술훈련에 음악을 리용하며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탁구기술을 잘 알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1학년 2반 정혁범학생은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몸이 뚱뚱하여 탁구를 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탁구를 하는것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탁구소조에 망라되여 체육선생님이 배워준대로 처음에는 매일 음악에 맞추어 바로치기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밀어치기, 걸어치기…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해서 얼마전에는 상급반 형님들과 경기를 하여 이겼습니다.》

학교의 기둥선수로 되고있는 3학년 5반 김영학생도 모든 기초기술동작들을 음악박자에 맞추어 훈련하여 유연성과 민활성을 해결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지난 기간 이렇게 자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여러 체육단들에서 핵심들로 활약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오늘의 성과가 조국의 체육강국건설에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탁구소조운영의 대중화를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제11차 전국소학교체육학급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영예를 안고 주체106(2017)년

학교에서는 김성희, 리근상을 비롯한 이름난 탁구선수들이 배출되였다.

탁구기술동작의 묘리를 배워주고있는 지도교원

탁구기초기술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학생들

인간생명의 기사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고 보건부문에서는 새로운 의학과학기술분야들을 개척하고 선진과학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함흥정형외과병원에서는 최근년간 미세외과수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활동과 그것을 림상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환자치료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

미세외과적수술은 완전히 절단된 팔다리를 다시 이어붙이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면서도 높은 인내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수술방법이다.

병원에서는 원장 박성일, 기술부원장 김문선을 비롯한 일군들과 능력있는 의사들로 강력한 미세외과전문치료집단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초행길이나 다름없는 연구의 길을 사색과 탐구로 이어갔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각이한 형태의 조직이식수술을 비롯한 수많은 림상실천을 통하여 미세외과수술을 할수 있는 기술과 기능, 경험을 쌓았다.

선진적인 외과의술을 림상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있는 함흥정형외과병원 의료일군들

수술실

수술경과를 세심히 알아본다.

하여 그들은 뜻하지 않는 일로 한 로동자가 손목이 완전히 절단되여 병원에 실려왔을 때 당당히 수술을 맡아나섰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의 손목회복을 위한 기술협의회를 조직하고 즉시에 수술조를 구성한 그들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로 2시간 30분동안에 수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절단된 손목을 다시 이어붙인 환자는 의료일군들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함흥정형외과병원에서는 선진적인 치료방법과 함께 환자종합감시장치, 산소농축기, 전동식흡인기 등 여러가지 의료설비들도 창안도입하였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런 인간생명의 기사들이 있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회복치료실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발굴

보성리벽화무덤 전경

발굴된 보요장식과 은못

질그릇류들

지난해 9월 조선에서는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1기를 새로 발굴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이 평양시 락랑구역 보성리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2km정도 떨어진 등판에서 발굴한 이 벽화무덤은 지하에 돌로 무덤칸을 만들고 그우에 흙을 씌운 돌칸흙무덤이다. 한칸으로 된 이 무덤칸의 크기는 길이 300㎝, 너비 268㎝이고 남아있는 벽체의 높이는 184㎝이다.

무덤칸의 바닥은 먼저 회미장을 하고 그우에 벽돌을 한벌 깐 다음 다시 회미장을 하였다.

벽체는 가공한 돌들을 쌓고 그 겉면에 회미장을 한 다음 검은색안료로 벽화를 그렸는데 북쪽벽과 동쪽벽, 서쪽벽의 벽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여있다.

북쪽벽에는 무덤주인공과 그의 안해의것으로 보이는 수레가 그려져있고 그 아래우로는 창을 든 군사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동쪽벽에는 3렬로 구성된 개마무사대렬이 그려져있는데 말에는 전부 갑옷을 입혔으며 그우에 탄 무사들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고있다.

서쪽벽에는 북쪽을 향하여 달리는 말과 건물 같은것이 그려져있다.

무덤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보요장식(드림장식)과 방울, 은으로 만든 못을 비롯한 금은장식품들 그리고 바리, 단지와 같은 질그릇류, 뼈로 만든 장식품 등 여러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구조형식과 벽화의 내용, 거기에서 나온 유물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무덤이 3세기 전반기에 축조되였으며 무덤의 주인공은 고구려의 높은 급의 관료라고 보고있다.

지금까지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락랑일대에서 4세기말~5세기초의것으로 볼수 있는 동산동벽화무덤이 발굴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그보다 퍽 이전시기인 3세기 전반기의것으로 되는 보성리벽화무덤이 발굴된것은 고구려가 3세기이전에 벌써 이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강화하여 자기의 공고한 거점으로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또한 옛 동방미술의 최고정화인 고구려시기의 무덤벽화가 선각화로부터 발전하여 검은색으로만 그린 단색화를 거쳐 그후 채색화로 발전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4세기 이후의 벽화무덤들에서만 보이던 개마무사가 3세기 전반기의 보성리벽화무덤에 등장한것을 통하여 고구려가 3세기 전반기에 벌써 5천명이상의 철갑기마대오를 가지고있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실물자료로 확증하게 되였다.

보성리벽화무덤의 발굴은 동방의 천년강국이였던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연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글 강수정

미국은 50년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을 전률케 했던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되였다.

50년전인 1968년 1월 23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의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7. 6n•mile되는 수역 (N 39° 17. 4′, E 127° 46. 9′)에까지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고있었다.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들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며 사격을 가하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1 000t급)와 거기에 탔던 80여명의 선원들을 나포하는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푸에블로》호는 미중앙정보국에서 직접 파견한 무장간첩선으로서 거기에는 현대적인 여러가지 정탐설비들이 설치되여있었으며 선원들이 가지고있던 지도에는 조선의 군사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여있었고 또 함선위치일일 기록부에는 1967년 12월에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사세보항을 떠나 조선령해에 여러차례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였다는것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파렴치하게도 《푸에블로》호가 《해양연구선》이라느니, 《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하는 거짓말을 꾸며대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방대한 무력을 조선수역으로 들이밀면서 엄중한 군사적위협을 감행하였을뿐아니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는 철면피한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세계가 우려하고있던 그때 공화국정부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국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고 《푸에블로》호가 조선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탐활동을 감행한데 대하여 실증하는 물질적증거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푸에블로》호 함장 로이드 마크 부쳐와 선원들은 자기들이 받은 임무에 대하여 첫째로 조선인민군 해군의 활동을 확인하며, 둘째로 조선인민군이 송신하는 일체 전자신호를 도청기록하며, 셋째로 《푸에블로》호와 같은 무장간첩선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여부를 판정하며, 넷째로 군사적관심사로 될수 있는 일체 새로운것에 대하여 정탐하는것이다라고 자백하였다.

조선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과 《푸에블로》호 선원들의 자백, 물질적증거자료들로 하여 더는 빠질구멍이 없게 된 미국은 드디여 저들의 범죄행위를 공식인정하고 공화국정부에 사죄문을 내였다.

《미합중국정부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정탐행위를 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미국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하는바입니다.》

미국은 50년전 저들이 섬겨바쳤던 이 사죄문을 다시한번 새겨보고 교훈을 똑바로 찾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뛴다면 《푸에블로》호사건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침략행위에는 언제나 패배와 수치만이 따를것이다.

사진 라평렬 글 김충복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선원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침입도

정탐기재들의 일부

사죄문에 수표하는 미륙군소장 길버트 에이취. 우드워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앞에 전시되여있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낸곳 : © 조선화보사 2018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한형주 13606-78115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금강산 귀면암의 설경 사진 공유일